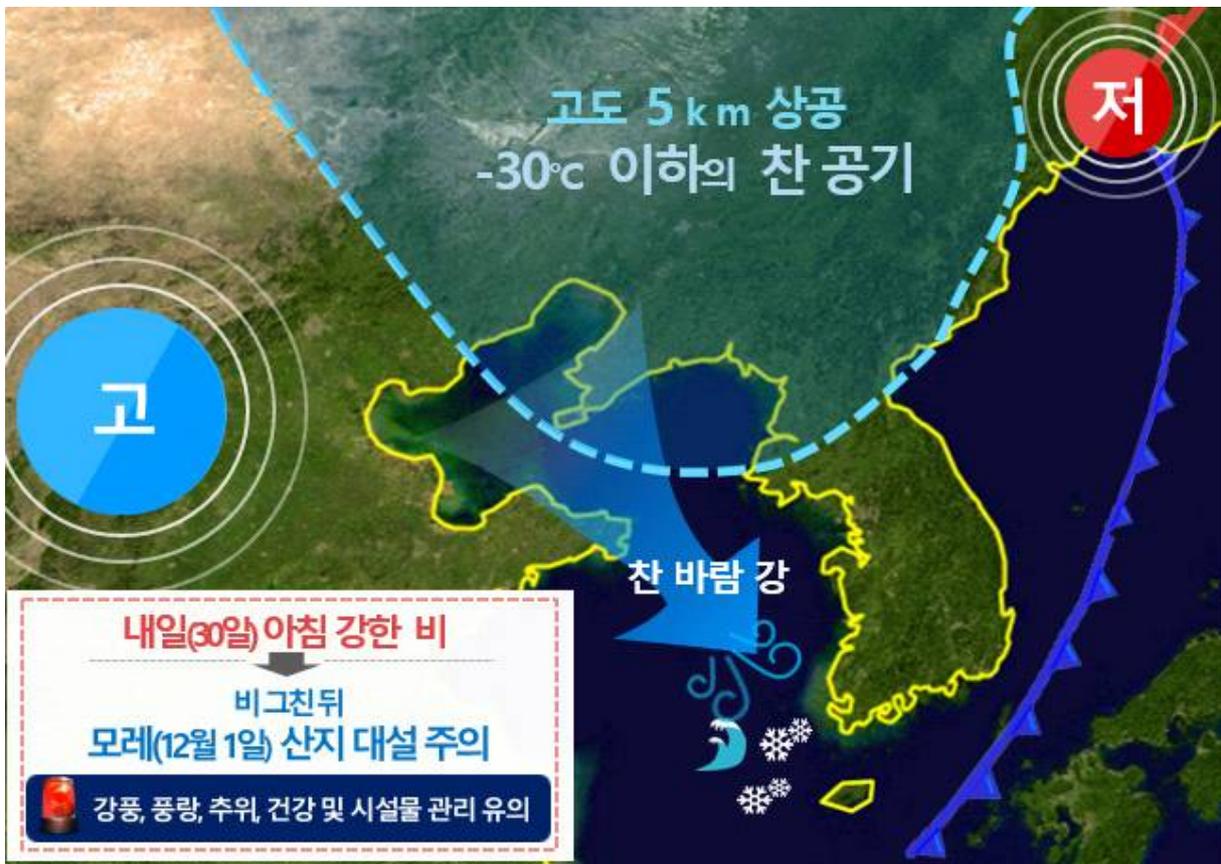
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11. 29.(월) 14:3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허택산 기상사무관 오영숙
		전화번호	064-727-0364

내일 출근길 강한 비, 저녁부터 추운 날씨 12월 1일까지 산간 대설 주의~!!!

- 30일 아침에 시간당 20mm내외의 강한 비, 돌풍과 천둥·번개, 출근길 안전사고 유의
- 30일 저녁~12월 2일 아침까지 찬바람 강하게 불어 추운 날씨, 산지 대설



[11월 30일 밤 기압계 모식도]

-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전재목)은 기압골이 통과하는 30일(화)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대부분지역에 강한 비가 내린 후, 저녁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고, 30일(화) 저녁부터 12월 1일(수) 오후까지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며 이에 대한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

[강수 전망]

- 중국 산둥반도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30일(화)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짧은시간에 시간당 20mm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, 오후에 차차 그치겠다고 분석하였다.
- 30일(화) 아침 출근시간대에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, 도로가 미끄러우며, 가시거리 1km미만의 짧은 곳이 있겠다며, 교통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주길 당부하였다.

<예상 강수량(30일~1일)> ○ 제주도 : 20~60m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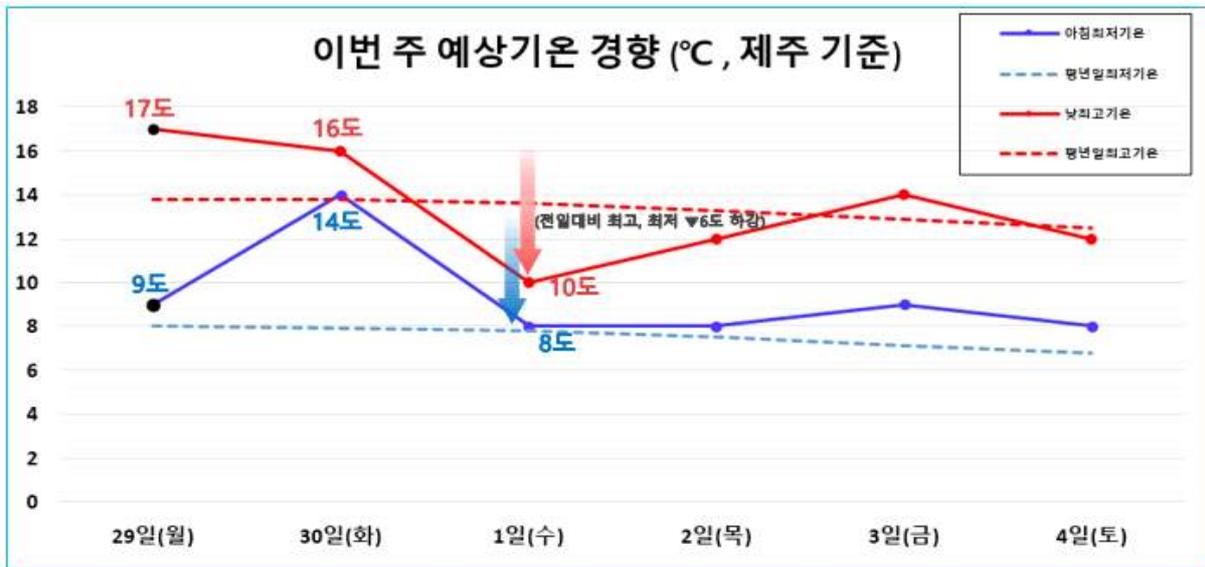
[추위 전망]

- 또한, 30일(화) 오후부터 고도 약 5km 상공의 -30°C 이하의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고, 지상에서는 대륙의 찬 성질의 고기압이 확장하며,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30일(화) 저녁부터 해안지역에는 비, 중산간지역에는 진눈깨비(비 또는 눈), 산지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, 12월 1일(수) 오후까지 가끔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전망하였다.

- (적설)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서해상에서 해수온도와 기온차(해기차)에 의해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발달하는 만큼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며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.

<예상 적설(30일~1일)> ○ 제주도산지 : 2~7cm

- (기온) 오늘(29일)보다 6~9℃가량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12월 1일(수)에는 낮 기온이 10℃ 안팎에 머물러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, 건강관리와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.



[이번주 11월 29일~12월 4일까지 기온 변화 경향]

- (결빙) 30일(화) 저녁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한라산 등산로와 산간도로(516도로, 1100도로 등), 일부 고도가 높은 중산간도로(산록도로, 침단로 등)에는 빙판길이 될 수 있겠다며,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[강풍 및 풍랑 전망]

- (강풍) 30일(화) 아침부터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, 순간풍속 70km/h(20m/s)로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분석하였다.
 - 강한 바람으로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 점검 관리와 육·해상의 교통 안전에 유의 및 항공기 운항정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
- (파도) 30일(화) 아침부터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서쪽면바다에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 강하게 불고, 물결이 2~5m내외로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,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는 12월 2일(목)까지 이어지겠다고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특히, 30일(화)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, 해상 활동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